기획재정부 **보 도 자 료**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4.(목) 08:00	배포 일시	2022. 11. 23.(수) 15:00

담당 부서	장기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	책임자	팀 장 최원석 (044-215-4970)
		담당자	사무관 어지환 (044-215-4971)

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「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」 마련
-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-

□ **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**은 **11월 24일(목),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**를 개최하고,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「**배출권거래제*** **제도개선방안**」을 발표하였다.

*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(배출할 수 있는 권리)을 사전 할당하고,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,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

○ 이번 회의는 **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**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, 가장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인 **배출권거래제**의 개선방안에 대해 **관계부처** 및 **민간 전문가**와의 **심도 있는 논의**를 위해 개최되었다.

<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요 >

■ (**역할**)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

■ (**구성**) 위원장(기획재정부 장관) 포함 21명 이내 위원

- (**정부: 13명**) 부총리(위원장), 기재부·과기부·외교부·행안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환경부·국토부·해수부 차관, 국무조정실 차장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산림청장
- (**민간*: 8명**) 고려대 박호정 교수, 과기硏 김진영 위원,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, 환경硏 채여라 위원, 산업硏 정은미 위원, 신성대 김용석 교수,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, 부경대 이지웅 교수

□ **배출권거래제**는 정부가 **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**하고, 그 범위내에서 **온실가스를 배출**하도록 하되, **여유분 또는 부족분**을 **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**하는 제도로서,

○ **2015년 최초 도입**된 이래 현재 **제3차 계획기간**(2021~2025년)이 진행 중이며, **69개 업종 733개 업체**가 참여하고 **국가 온실가스 배출량**의 **70% 이상을 포괄**하는 **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**로 자리잡았다.

□ 「**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**」은 **새 정부 국정과제** 및 **경제정책방향** 등에 반영된 **"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"를** 위한 **민-관간 지속적인 협의***의 결과 마련되었으며,

* 환경부 주관 「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('22.8월 출범)」를 통해 업계로부터 수렴한 총 78건의 개선과제를 검토 및 반영

○ 특히, **연내 즉시 개선**이 가능한 **과제 중심**으로 구성함으로써, **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**에 중점을 두었다.

□ 우선 **기업의 의무이행 지원** 및 **감축유인 강화**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**단기과제**는 크게 **❶온실가스 감축 유도, ❷배출권 시장 활성화, ❸행정부담 완화, ❹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**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.

❶ 첫째, 기업의 **온실가스 감축투자**에 대한 **인센티브를 확대**하여 감축설비 등의 **투자를 유도**한다.

- **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·증설**시 **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**하여 **감축설비 투자를 유도**하도록 **'배출효율 최우수 시설'**에 대한 **기준을 명확히** 하고,

- 바이오납사와 같은 **친환경원료로 제품을 생산**하는 경우, 이를 **감축실적으로 인정**하여 **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**한다.

❷ 둘째,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**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**할 수 있도록 **배출권 시장을 활성화**한다.

-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**증권사**가 **배출권**을 **위탁받아 거래***할 수 있도록 **허용**하여 **배출권**이 보다 **활발하게 거래**될 수 있도록 하고, **배출권 선물거래 도입** 등을 통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**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**한다.

* 현재 배출권시장에서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어 있으나, 할당업체의 배출권 위탁거래는 불가능하고 자기매매만 허용 중

- 아울러, 금년 말 종료되는 **배출권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'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**도 추진한다.

❸ 셋째, 기업의 **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해 각종 **행정절차를 간소화**하고 **규제를 완화**한다.

- 기업들이 **국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**을 **국내 배출권**으로 보다 **쉽게 전환**할 수 있도록,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**이원화된 검토절차를 동시진행**하고,

- 기업들이 **신규 해외사업 신청시 참고**할 수 있도록, **기존 신청사업**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**공유**하여 **예측 가능성**을 높인다.

- 또한, 현재 매년 **전자산업 업체별**로 온실가스 **감축설비 중 20%**에 대해 **저감효율을 측정**하던 것을 **10%로 완화**하여 배출량 측정·보고·검증(MRV) 부담을 경감한다.

❹ 넷째, **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**을 지원하기 위해, **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**가 **비대상업체**를 **인수·합병**하는 경우 **신규 사업장**에 대해 **배출권을 추가 할당**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배출권거래제의 근간과 관련된 **중장기 과제**에 대해서도 **쟁점 조기 파악 및 선제 대응**을 추진한다

○ 우선, **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**(NDC)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**배출허용총량 설정·관리방안**을 마련하여, **NDC 달성**에 **배출권거래제가 기여**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**온실가스 감축유인·산업경쟁력**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 10% 수준인 **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**하고,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한다.

□ 오늘 발표한 내용 중 **단기과제**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**연말까지 개선을 완료**하고, **중장기 과제**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논의하여 '23년 중 **추가 대책을 마련**할 계획이다.

□ **추 부총리**는,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**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**(NDC) **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**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,

○ **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**하면서도, **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**한 정책방향을 설계하여 **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**할 계획임을 밝히고,

○ 특히, **배출권거래제**가 기업의 **감축투자를 유도**하면서 **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**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**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**할 것임을 언급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장기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	책임자	팀장 최원석 (044-215-4970)
		담당자	사무관 어지환 (eojihwan@korea.kr)
환경부	기후탄소정책실 기후경제과	책임자	과장 전 완 (044-201-658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지 (kristi90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